

[사회]

최악 경제난... 내몰리는 극빈층 <2> 재래시장 상인들

쉬지 않고 일하지만 생활비 벌기도 힘들어

희망 잃은 '좌판의 비애'

“시장에서 하루 벌이 하루 먹고 사는데... 시장 약초 판매거리에서 만난 김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이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곳에 좌판을 펴다. 김씨의 한 달



2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상인들이 좌판을 열고 있으나 시장 거리는 한산하기만 하다.

장을 보려는 주부들로 붐비 오전 11시. 말바우 시장 거리는 오히려 고조되었다. 겨울 문턱에 다가선 시장 거리는 찬 기운이 느껴졌다.

시장 약초 판매거리에서 만난 김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이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곳에 좌판을 펴다. 김씨의 한 달

수입 30%나 줄어 들고 이젠 눈물조차 안 나와 오직 남은 것은 빛 밖에

평균 수입은 75만원(정부지원 생계급여 17만원 포함). 지난해 월 평균 수입은 110만원이었다. 수입의 3분의 1 정도(35만원)만 남고 있다.

김씨는 “그나마 지난해에 하나 있는 딸 학비 걱정은 안했는데, 올해 너무 힘들다”며 “딸 자식의 꿈이 간혹대학 가는 것인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다니는 고등학교마저 그만 두겠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 미어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매월 ▲전화·전기·수도요금 10만원 ▲교통비 25만원 ▲병원비 10만원 ▲월세 5만원 등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는 고작 25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 딸 학원비는 커녕 납부금 내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김씨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는 게 너무 답답하지만 이젠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양동시장에서 배추장사를 하는 고모(여·68)씨는 한 톨이라도 아끼려고 집에서 싸운 도마를 쓰거나 물에 팔아 가니를 때우고 있었다. 고씨는 순창 등 다른 지역에서 오이와 고추, 밤 등을 도매 가격으로 구입, 이를 다음에 뒤 손님에게 5~10%의 웃돈을 받고 팔고 있었다.

고씨는 “일년 동안 쉬지 않고 시장에서 좌판을 벌이고 있지만 손에 쥐인 돈은 겨우 생활비 정도”라고 말했다. 깊게 팬 고씨의 주름이 속을 아리게 했다. 고씨는 지난 4월 행소니 사고를 당한 막내 아들(35)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 2천만원을 받아 아들 병원비를 내고 나니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월 평균 수입이 기껏해야 60만원 수준인 고씨에게 너무 큰 금액이다. 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들의 병원 치료다.

고씨는 “돈이 없어도 다친 아들 틀니도 해주지 못했다.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틀니라도 해 주고 싶는데, 장사도 안되고 달리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과학영재학교 광주에 유치” 시교육청 30일 신청서 제출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30일 광주 과학고교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과학영재학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27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그동안 광주과학고 이설을 계기로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약 등 사전 정치작업을 해왔다. 시 교육청은 최근 광주시를 비롯해 광주상,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조선대 등과 잇따라 과학영재학교 설립·운영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영재학교 설립 협조결의를 이끌어냈다.

시 교육청은 또 2010년 광주과거원에 학사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학생들의 연계 진학이 가능하고 문화수도 육성에 따른 문화예술 인력 양성 필요성, 지역 안배 등 영재학교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시 교육

청은 또 영재학교 시설과 재원, 교원 과학고교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과학영재학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영재학교는 2003년 설립된 부산에 이어 지난 4월 서울시가 확정됐으며 올해 1~2곳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현재 과학교 수준인 학년당 80명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영재학교는 2003년 설립된 부산에 이어 지난 4월 서울시가 확정됐으며 올해 1~2곳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현재 과학교 수준인 학년당 80명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영재학교는 2003년 설립된 부산에 이어 지난 4월 서울시가 확정됐으며 올해 1~2곳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다음 달 초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하고 산하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 낙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October 28th, including a map of Korea and a table of temperatures for various cities.

남도문화제 내일 순천시 개막

40개팀 참가 열띤 경연

남도민의 전통 민속예술잔치인 '제35회 남도문화제'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순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민요 8팀, 민속놀이 13팀, 농악 19팀 등 40개팀 2천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1966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향토민속예술의 발굴과 전승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남도문화제는 전남지역의 다양한 민속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전통예술 경연대회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청소년부를 신설해 청소년들에게도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남도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대회를 통해서 발굴된 팀은 매년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중앙민속예술축제'에 전남대표로 출전해 전국에 남도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게 된다.

순천시에서는 “남도문화제” 행사기간 ‘특산품코너’ ‘기념품 코너’ ‘향토음식점’ 등 각종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운영해 참석자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동식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다양한 남도의 전통예술이 ‘남도문화제’를 통해 발굴돼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며 “남도문화제를 통해 잊혀져가는 남도의 우수한 민속놀이를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생활고 비판

40대 女 자살

27일 낮 12시20분께 광주 북구 A씨(여·49)의 집에서 A씨가 목을 매 숨겨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

으나 불황 여파 등으로 식당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변에서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해 괴로워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감안, 신병을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촛불집회 진압 인권 침해”

인권위 최종 판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7일 “촛불집회와 관련한 130여 건의 인권침해 진정사건들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이 집회 진압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경찰이 해산작전을 진행할 시에는 경찰력 최소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여러가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

관에게 과도한 공격진압으로 일부 시위대에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일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진압작전을 진행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기본본부장과 4기동단장에게 징계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위원 11명이 모두 모인 가운데 ‘촛불 안전’을 두고 6시간 가량 마라톤 논의를 벌여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인권위는 촛불집회에서 130여 건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7월11일부터 2개월 넘게 직권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전원위원회 안건을 상정했다. /연합뉴스

‘불온서적’ 출판사·저자

국가 상대로 손해 소송

지난 7월 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천문화 등 11개 출판사와 한홍구 씨를 비롯한 저자 11명은 27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등은 소장을 통해 “국방부장관이 ‘불온서적 목록’을 작성해 ‘금서 조치’를 내린 행위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price, and featur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undaebada,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fish and a table of property listings.